

농어촌공사 경남본부 "신속한 응급복구로 농업현장 정상화 최선"

등록 2025.07.20 16:25:47



[창원=뉴스시스]관내 농어촌공사 현장 찾은 손영식 농어촌공사 경남본부장.(사진=농어촌공사 경남 제공)
2025.07.20.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스시스] 김기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17일부터 발생한 경남 지역의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총 1398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농어촌공사 경남본부는 저수지 658개소, 양배수장 813개소와 용배수로 1만1478km를 관리하고 있다.

지역본부장과 13개 지사장은 17일부터 관내 주요 시설물 피해 현장을 직접 발로 찾아 긴급점검과 응급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경남지역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 등으로 기록적인 극한호우가 이어지며, 산청 794mm, 합천 699mm, 하동 622mm, 창녕 600mm 등 전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역대급 피해가 발생했다.

농어촌공사 경남본부는 지난 5월 초부터 여름 집중호우에 대비해 ▲저수지 사전 방류를 통해 저수용량의 충분한 확보 ▲배수장 펌프 점검(365개소, 총 1500여회) ▲상습 침수 우려 지역의 배수로 준설(145km) 작업을 실시했다.

손영식 본부장은 "추가적으로 올 수 있는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농업인들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신속한 응급복구가 필요하다"며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와 장기항구대책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에 더 힘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